

# 컵카 “코스 컨디션 환상적...내년에도 오겠다”

(우승자)

편리한 이동거리·매끄러운 진행 등 호평 4만1000명 갤러리 뜨거운 환대도 한 몫 후원사 23개사, 해외진출 발판 마련도



우승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브룩스 컵카(왼쪽 사진)와 더 CJ컵 비비고 투썸플레이스 부스.



사적제공 | THE CJ CUP @ NINE BRIDGES

제주에 위치한 클럽나인브릿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최초의 PGA투어 정규 대회인 THE CJ CUP @ NINE BRIDGES(이하 더 CJ컵)이 21일, 브룩스 컵카(미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과 동시에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브룩스 컵카뿐만 아니라 저스틴 토마스, 제이슨 데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지난해보다 약 6000 여명이 늘어난 4만 1000여명의 갤러리가 대회를 찾았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했다. 매끄러운 대회 운영을 통해 선수와 골프 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CJ그룹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대회였다.

## ●선수들이 전한 감사함과 코스에 대한 호평

CJ그룹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78명의 선수들이 제주도에 도착하면서부터 대회 종료 후 제주를 떠날 때까지 공항, 숙소, 대회장간의 이동과 식사 등에 불편함 없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선수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해 우승자 저스틴 토마스는 “CJ그룹에서 선수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면서 “공항, 숙소, 대회장간 이동이 편리하고 모든 행사가 제 시간에 진행되는 등 소소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큰 감동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코스 수준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대회를 공동 5위로 마무리 한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는 “미국 어떠한 PGA투어 대회 코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CJ측에서 정말 잘 준비했다”라며 극찬했고, 우승을 차지한 브룩스 컵카 역시 “코스 컨디션이 정말 좋다. 너무 환상적이고 도전적이라 플레이가 재미 있어 내년에도 오고 싶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더 CJ컵을 통한 스폰서들의 글로벌화, 그리고 시그니처푸드

2회째를 맞은 이번 더 CJ컵의 후원사는 23개사로 지난해보다 5개사 늘었다. 후원사들은 홍보의 장이자 해외 진출의 발판으로 대회를 적극 활용했다. 올해 처음 스폰서로

참여한 오를리의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아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골프 브랜드 JDx 관계자 역시 “지난 해 스폰서 참가 후 10%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며 올해에도 참가하게 됐다”라면서 더 CJ컵의 홍보 효과에 만족해했다.

이번 대회 시그니처푸드로 처음 갤러리에게 선을 보인 ‘비비곤’은 매일 준비한 수량이 오전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갤러리플라자, 엑스포 존, 대회 주요 코스 4곳에서 다양한 핑거푸드를 준비한 비비고는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에게 경기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국내와 골프 팬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 ●더 CJ컵을 통해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다

더 CJ컵이 개최되면서 제주도는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제주공항을 비롯해 제주 곳곳에 대회 광고물이 걸렸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매진됐다.

우승을 차지한 브룩스 컵카와 2016 마스터즈 챔피언 대니 윌렛이 모델로 나서 226개국 10억 가구 이상에 제주를 알렸다. 평소 낯시를 즐기는 컵카는 제주 앞 바다에서 51cm 짜리 황돔을 낚으며 실력을 뽐냈고, 이는 대회 기간 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79번째 출전 선수’라는 의미를 가진 800여명의 ‘TEAM79’ 자원봉사자들은 3차례 이상의 교육과 국내 대회 자원봉사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회장을 찾은 선수와 국내외 골프 팬들에게 제주뿐만 아니라 대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 흑인 첫 ‘EPL 이달의 감독’ 무어 강등된 WBA에 희망 다시 쏘까



대런 무어

웬 파르디올라, 조세 무리뉴, 샘 앨러다이스 등 쟁쟁한 감독들이 후보에 오른 2017~2018 시즌 프리미어 리그 4월의 주인공은 다소 낯선 얼굴이었다. 웨스트 브롬위치 알비온(이하 WBA)의 감독대행 대런 무어가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 것이다.

앨런 파듀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물러나고 WBA는 유스팀의 감독인 대런 무어를 감독대행 자리에 앉혔다. 당시 WBA는 리그 최하위로 19위 스톡 시티와의 승점이 7점차로 떨어져 사실상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었다. 33라운드부터 지휘봉을 잡은 무어 감독은 스완지 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무어 감독의 기적은 34라운드부터였다. 리그 5연승을 구가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 적진에서 승리를 가져오더니 35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2골을 먼저 내줬지만 경기 종료를 앞두고 천금같은 동점골을 넣으며 승점을 챙겼다. 뉴캐슬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내용면에서는 밀렸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두 경기 모두 1-0 승리를 거뒀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대런 무어 감독 대행은 4월의 감독상을 받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사우샘프턴이 스완지 시티에게 승리해 17위보다 승점이 5점이 뒤진 WBA는 강등이 확정되었다. 그래도 팬들은 대런 무어의 정식 감독 부임이라는 반가운 뉴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신동현 대학생 명예기자 renydh93@naver.com

## 창단 2년만에 PO 이끈 ‘경주 수호신’ 운영글

### WK리그 ‘7위→2위’ 만든 일등공신

2017시즌 28경기 5승 6무 17패, 8팀 가운데 7위. WK리그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의 창단 1년차 성적이다. 그리고 불과 1년이 지난 올해, 경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경주는 지난 22일 정규리그 일정을 마무리한 2018 WK리그에서 28경기 16승 5무 7패로 인천현대제철에 이어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다. 경주의 이러한 성장에는 운영글의 공이



운영글

운영글은 2018 알라바마컵과 AFC 여자 아시안컵, 그리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의 ‘No.1 골키퍼’로 활약하며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널리 알렸다.

운영글이 유명세를 타면서 그의 독특한 이력 역시 덩달아 조명받고 있다. 운영글은 본래 필드 플레이어로 뛰다가 실업 무대 데뷔 후 골키퍼로 포지션을 변경한 특이 케이스다. 부상과 팀 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골키퍼 장갑을 끼야만 했다. 포지션 변경 후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월드컵 명단에도 승선하는 등 그의 변신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본기 부족으로 금세 한계에 부딪혔다. 대선배 김정미의 그늘과 강가에 등 새롭게 등장하는 후배들 사이에서 입지도 흔들렸다. 선수로 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은퇴까지 고민했다.

운영글은 방향의 시기를 “선생님이 필요했던 시절”이라고 자평했다. 그리고 운영글처럼 김풍주 코치를 만났다. “코치님을 만나기 전 18년 동안 배운 것보다 코치님께 배운 1년이 더 행복하고 소중했다”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의 인연은 특별하다. 이제 그의 앞에는 월드컵이 남아 있다. 운영글은 “나는 늘 후보였다. 그런데 올해 꿈이 현실이 되었다. 경기를 치르면서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 월드컵에서 내 실력을 멋지게 발휘하고 싶다”며 월드컵을 향한 각오를 드러냈다.

윤지영 대학생 명예기자 kks0h17@naver.com

##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포스트시즌 기록실
<p>한국시리즈</p> <p>4일(잠실) 0 10-8 X</p> <p>5일(잠실) 0 5-1 X</p> <p>7일(마장) X 2-3 O</p> <p>8일(마장) X 5-7 O</p> <p>9일(마장) X 2-3 O</p> <p>11일(잠실) X 31일(고척) 0 4-3 X</p> <p>12일(잠실) X 11월 2일(인천) X 2-5 O</p> <p>준PO</p> <p>와일드카드 결정전</p> <p>0 10-6 X</p>	<p>2018 POST SEASON</p> <p>2018 한국시리즈</p> <p>1위: 두산</p> <p>2위: SK</p> <p>3위: 한화</p> <p>4위: 넥센</p> <p>5위: KIA</p>

연도	승리 팀	전적	패배 팀
2008	두산 (4승2패)	0XXOOO	삼성 (2승4패)
2009	SK (3승2패)	XXOOO	두산 (2승3패)
2010	삼성 (3승2패)	0XXOO	두산 (2승3패)
2011	SK (3승2패)	0XOXO	롯데 (2승3패)
2012	SK (3승2패)	0XXOO	롯데 (2승3패)
2013	두산 (3승1패)	0XOO	LG (1승3패)
2014	넥센 (3승1패)	0XOO	LG (1승3패)
2015	두산 (3승2패)	0XXOO	NC (2승3패)
2016	NC (3승1패)	0XOO	LG (1승3패)
2017	두산 (3승1패)	XOOO	NC (1승3패)
2018	SK (2승)	OO	넥센 (2패)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7전4선승)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NLCS (7전4선승)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ALCS (7전4선승)	0 7-2 X	X 5-6 O
	X 5-7 O	0 4-3 X
	X 2-8 O	0 2-1 X
	X 6-8 O	0 5-2 X
	X 1-4 O	0 2-7 O
		0 5-1 X

월드시리즈 5차전 경기결과
보스턴 5 - 1 LAD

프로농구	팀순위
1 모비스	7 6 1 0.857 0 1승
2 KT	7 4 3 0.571 2 2승
3 SK	7 4 3 0.571 2 2승
4 전자랜드	7 4 3 0.571 2 1승
5 KCC	7 4 3 0.571 2 1패
6 인삼공사	6 3 3 0.500 2.5 1패
7 LG	6 3 3 0.500 2.5 1승
8 삼성	6 2 4 0.333 3.5 1패
9 오리온	7 2 5 0.286 4 4패
10 DB	8 2 6 0.250 4.5 2패

프로배구	팀순위
1 대한항공	5 4 1 12 419 375 4승
2 현대캐피탈	3 3 0 9 252 216 3승
3 OK저축은행	4 3 1 9 356 339 1패
4 삼성화재	4 2 2 6 389 393 1패
5 KB손해보험	4 2 2 6 350 337 2승
6 한국전력	4 0 4 0 349 400 4패
7 우리카드	4 0 4 0 335 390 4패

프로골프	PGA TOP10
① 필스(미국) -21	② 코너스(캐나다) -17
③ 스미(미국) -15	④ 카스트로(미국) -14
⑤ 생크(미국) -13	⑥ 리브스(미국) -13
⑦ 메이(미국) -13	⑧ 스테파니(미국) -13
	⑨ 이경환(한국) -7

NBA	경기결과
LAC 136-104 워싱턴	유타 113-104 델러스
골든스테이트 120-114 브루클린	오를랜드 117-110 피닉스

경기 예고	프로농구
<p>2018-2019 SKT 5GX KBL</p> <p>LG &lt;창원실내&gt; 삼성</p> <p>SK &lt;잠실학생&gt; 인삼공사</p>	<p>2018-2019 남자프로배구</p> <p>삼성화재 &lt;대전충무&gt; OK저축은행</p>